

제임스 조이스의 작품에 나타난 아일랜드 신교도: 사회변화와 적응*

최 석 무

I

아일랜드에서는 1980년대에 문학/예술을 통한 정치적,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필드 데이(Field Day)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된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서 몇 편의 논문으로 구성된 팸플릿이 연달아 출판되는데, 논문의 주된 주제 중의 하나는 ‘누가 아일랜드를 대표하는 작가’인가 이다. 비평가들은 공통적으로 가톨릭교도 출신의 조이스(James Joyce)가 진정으로 아일랜드를 대변하는 작가이고, 예이츠(W. B. Yeats) 등 신교도 문예부흥론자들(Revivalists)은 영국적/제국주의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논하였다. 1990년대에 도입된 탈식민 비평은 이러한 논의를 영문학 연구의 중심영역으로 확장했다. 조이스와 문예부흥론자들을 비교한 연구는 세이머스 딘

* 이 연구는 2021학년도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특별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Seamus Deane), 테리 이글턴(Terry Eagleton), 데클런 카이버드(Declan Kiberd), 렌 플랫(Len Platt), 윌리엄 포츠(Willard Potts), 클레어 허턴(Clare Hutton) 등 다수가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문예부흥론자들은 “진귀한 것을 찾기 위해 원주민 거주지에 온 제국주의자”(Kiberd 336)와 같고, 그들은 “전통과 민중의 오래된 기억”을 이용하여 자신의 존재를 합리화하고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문예 운동을 이용하였다(Eagleton 59). 이렇게 탈식민 이론은 지배/피지배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신교도계 작가와 조이스를 양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비평은 16세기 이후 아일랜드에 정착한 신교도의 정체성을 과도하게 단순화한 산물이다. 신교도계 작가와 가톨릭계 작가를 지배/피지배 관계로 보는 것은 아일랜드에서 신교도의 오랜 역사를 무시하고, 아프리카, 아시아를 정복한 영국인과 아일랜드 신교도를 동일시한 결과이다. 신교도는 영국에서 이주한 이주민의 후손으로 영국의 아일랜드 지배의 산물이지만, 오랫동안 아일랜드에서 거주하면서 아일랜드인임을 주장하면서 토착화하였다. 그들은 식민 지배를 받아왔다는 가톨릭의 “억압의 역사관”에 대항하여 “문명이 무지와 야만에 맞서 투쟁했다는 영웅담”으로 그들의 아일랜드 정착을 정당시켰다(Platt 18). 그들은 종교적인 면에서도 성공회는 “초기 아일랜드 교회의 정당한 상속자로서 주교들은 성 패트릭의 계승자”이며, 초기 아일랜드 교회도 “성공회의 39개 신조(Thirty Nine Articles)를 믿었다”고 주장한다(Ford 5). 또한 가톨릭교회는 외국에서 들여와 “자연 그대로의 켈트 정신”을 훼손하였고, 성공회와 달리 외국의 통제를 받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Platt 22). 『율리시스』(*Ulysses*)에서도 언급되듯이, 그들은 신교가 “진정한 종교”(U 5.326)라고 믿는다. 에이츠가 상원에서 연설한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신교도는 아일랜드의 “현대 문학의 대부분을 창조했고, 가장 훌륭한 정치 지도자를 배출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Pearce 99). 그들은 또한 그들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영국과 끊임없이 투쟁한 투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형성된 신교도 민족주의는 그들이 아일랜드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게

하였고, 이것은 20세기 초에 아일랜드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는 배경이 된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아일랜드 분단에 이르게 되는 일련의 갈등 상황은 흔히 “영국의 작품”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아일랜드 신교도의 작품”이다(Tanner 14). 아일랜드 독립운동가 중에는 울프 톤(Wolfe Tone), 로버트 에멧(Robert Emmet), 찰스 파넬(Charles Stewart Parnell), 더글라스 하이드(Douglas Hyde) 등 신교도 출신이 다수이다. 신교도가 주축이 된 아일랜드 문예부흥 운동은 영국인과 다른 아일랜드인의 정체성을 만들어 독립을 위한 정신적 토대를 구축하였다. 따라서 신교도들이 아일랜드 독립을 위해 정치적, 문화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얼스터(Ulster) 지역에 사는 신교도는 남쪽 신교도와 달리 분단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자치(Home Rule) 법안의 통과와 더불어 아일랜드 독립이 가시화되자, 신교도들은 신교도가 다수를 차지하는 북아일랜드가 영국의 일부로 남을 수 있게 투쟁하였고 그 목적을 달성하여 아일랜드 분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아일랜드 신교도가 아일랜드 독립에 중추적 역할을 하려고 했지만 그들의 주도권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가톨릭교도들은 신교도의 문화적 민족주의를 전유하여 그 성격을 가톨릭적으로 바꾸어 영국과 다른 아일랜드인의 새로운 정체성을 가톨릭적 세계관에서 찾았다. 가톨릭 민족주의자들은 신교도인 하이드가 1893년에 세운 게일릭 연맹(Gaelic League)을 인수하여 “비정치적이고 비종파적인 색채”를 제거하고, 아일랜드어를 “인종적/정신적으로 순수한 언어”로 신비화했다(Tanner 269). 이글턴이 주장하듯이, “신교도 애국자들이 아일랜드인의 공통점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한 것이 그들을 제거하려는 손에 넘어가 무기가 되어 버린 셈이다”(265). 즉, 게일릭 연맹이 가톨릭에게 주도권이 넘어가자, “종파적인 단체가 되어 반영국적일뿐만 아니라 거의 전적으로 가톨릭적/반신교도(anti-Protestant)적” 색채를 띠게 되었다(Tanner 270). 신교도는 19세기 후반에 종교적 특권 폐지(Irish Church Act of Disestablishment, 1869)와 토지개혁(Land Acts, 1881

& 1885)에 이어 문화적 지배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잇따른 자치 법안(1886, 1893 & 1912년)의 발의로 독립이 가시화되자, 신교도는 가톨릭교회와 가톨릭교도가 주도권을 장악할 독립된 아일랜드에서 소수집단에 속하게 되는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

에이츠와 모드 곤(Maud Gonne)은 빅토리아(Victoria) 여왕과 에드워드 7세(Edward VII)의 아일랜드 방문을 비난하는 등 공공연하게 영국제국에 대한 반감을 표현했다. 에이츠는 『캐슬린 니 홀리한』(*Cathleen ni Houlihan*)이라는 드라마에서 아일랜드 젊은이들이 아일랜드를 위해 피흘려 싸울 것을 독려했다. 모드 곤은 영국 군인은 “우리 아일랜드의 수치”라고 하면서 “밤에 오코넬 거리에서 그들을 쫓아내야 한다는 편지”(U 5.70-71)를 쓰면서 영국 지배에 항거했다. 그러나 에이츠와 모드 곤의 경우는 특이한 경우로 평범한 신교도의 모습과는 다르다. 에드워드 7세가 더블린을 방문했을 때 모드 곤이 영국 국기가 아닌 검은 속치마를 더블린 자택 창문에 걸어 두었는데 이는 “합방(Union)을 지지하는 이웃”인 신교도를 모욕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졌다(Pašeta 488). 조이스의 작품은 보통의 평범한 신교도의 모습을 잘 재현해준다. 신교도들은 “에드워드 시대(Edwardian era, 1901년~1910년 또는 1914년)를 인디언 섬머(Indian summer)”라 부른다(Tanner 267). 이 당시는 총독이 더블린 콘서트장에 등장할 때 “청중이 환호”한 시대였다(Tanner 267). 이는 「떠도는 바위들」(“Wandering Rocks”)장에서 총독이 더블린 시내를 행진할 때 대부분의 아일랜드 사람들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에 반영되어 있다. 에드워드 시대 이후 아일랜드의 정치 상황은 신교도와 가톨릭교도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는데, 조이스는 『피네간의 경야』(*Finnegans Wake*) 이전의 작품에서 에드워드 시대의 신교도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신교도는 자신들이 생존하기 가장 좋은 입장을 견지했다. 16세기 이후 영국에서 온 신교도는 정착민으로서 원주민인 가톨릭교도와 지배/피지배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들은 19세기 초 가톨릭교도 해방 이전까지 피널 로(Penal Law)를 통해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으로 가톨릭교도를 억압하였다. 그들은 19세기 후반기에 종교와 토지개혁 법안으로 종교적, 경제적 특권을 잃자 아일랜드 문예부흥 운동을 통해 아일랜드인임을 강조하였고, 20세기에 들어와 아일랜드 독립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자 영국과의 지속적인 합방을 찬성했지만, 막상 독립이 가시화되자 콜린스(Michael Collins)가 이끄는 새 정부를 지지하였다.

본 논문에서 다룰 『더블린사람들』(*Dubliners*)과 『율리시스』는 아일랜드의 분할/독립에 대한 논의가 있기 전의 아일랜드의 상황을 잘 보여준다. 신교도의 정체성을 알아보는 데 있어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달리 조이스와 문예부흥론자라는 실제 작가들의 차이가 아니라, 작품 속에 묘사된 신교도의 삶을 통해 그들의 현실을 조명하려 한다. 즉, 조이스의 작품을 통해 시대 전환기의 신교도들의 삶을 알아보고, 그들이 사회변화에 따라 어떤 선택을 하였는지 알아보겠다.

II

아일랜드의 인종적/종교적 갈등은 성공회를 신봉한 엘리자베스 1세(Elizabeth I)의 아일랜드 식민정책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루언(Joseph Ruane)이 지적하듯이, 유럽 다른 국가에서 “국교는 다수 국민의 종교이고, 국교의 특권은 왕국의 통일과 독립, 군주의 합법성을 보장하는 한 방법이였다”(118). 그러나 아일랜드에서 국교 성공회는 “정착민 집단의 종교 중 하나에 불과하고, 그 특권은 왕국의 분열을 가속화하고, 외부 지배를 강조하고, 그 지배자는 다수 국민으로부터 합법적인 군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Ruane 118). 영국은 식민 지배와 더불어 아일랜드 가톨릭교도를 국교도로 개종하는 데 실패하면서 “16세기 후반과 17세기 초에 두 개의 다른 교회와 두 개의 다른 종교적 정체성”이 자라게 되고, “민족의 정체성 문제에 대해 완전히 다른 태도”가 생기게 된다(Ford 2). 사실상 아일랜드 역사상 개종은 쉽지도 않았고 흔히 있는 일도 아니었다. 1820년대

부터 시작된 제2 종교개혁(Second Reformation) 운동은 복음주의 성공회가 가톨릭을 신교도로 개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 성과는 미미했는데 그 이유는 가톨릭이 신교로 개종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판사, 지주, 대저택”으로 대변되는 신교도 계층에 속하게 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Tanner 210-11).

조이스는 신교도의 개종의 역사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고찰한다. 『울리시스』의 「레스트리고니아 사람들」(“Lestrygonians”) 장에서 블룸의 개종에 대한 생각은 서점에 진열된 책인 “내가 왜 가톨릭교회를 떠났나?”(U 8.1070)를 보면서 촉발된다. 이 책의 저자인 찰스 치니키(Charles Chiniquy)는 프랑스계 캐나다 신부였다가 장로교 목사가 되는데 그는 가톨릭 교리의 문제점 때문에 개종한다. 블룸은 치니키와 달리 아일랜드에서의 개종은 생존의 문제였음을 지적한다. 블룸은 음식 등을 이용해 가톨릭을 신교도로 개종하려 한 역사를 비판한다. “새의 둥지”(Birds’ nest)(U 8.1071)는 “신교도 선교 기관”을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되는데, 이는 “170명의 누더기를 걸친 아이들을 수용한 킹스타운에 있는 신교 선교 기관”의 실제 이름에서 유래했다(Gifford 186). 설립자인 엘렌 스마일리(Ellen Smyly)는 부유한 신교도로서 “한 종파가 다른 종파의 고아를 개종”하려는 노골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Burke 208). 신교도는 “1829년 가톨릭 해방 이후에 점점 많아지는 가톨릭교도의 성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일랜드의 많은 불우한 아이들을 위해 자선활동”을 하면서 그들을 신교도로 개종하려 했다(Burke 207).

인도에서처럼 아일랜드에서도 “신교도로 개종한 사람은 부르조아 출신이 아니라 매우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이것은 아무도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Tanner 245). 아일랜드에서 개종 때문에 신교와 가톨릭 사이에 야기된 최악의 갈등은 1840년대 대기근 시대에 발생했다. 블룸은 신교도들이 “감자 기근 당시에 신교도로 개종하라고 가난한 아이들에게 수프를 주었다”(U 8.1071)고 회상하는데, 음식을 주면서 개종을 유도한 이와 같은 사건은 두 종교의 첨예한 갈등을 불러온다. 특히, “백

만 명의 가톨릭교도가 아사에 직면한 상황에서 음식물 한 조각을 개종한다면 준다는 조건으로 굶주린 농민들의 침 흘리는 입 앞에 내밀며 폐허가 된 마을을 신교도들이 무리를 지어 돌아다녔다”(Tanner 244)는 이야기는 가톨릭교도 사이에 널리 회자되었다. 이러한 이야기가 얼마나 흔한 일이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신교도들이 개종을 위해 음식을 이용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블룸은 음식을 활용해 개종을 유도하는 것은 종교의 오래된 관행이라 생각한다. 블룸은 “아버지가 갓었던 가난한 유대인의 개종을 위한 협회”도 “같은 미끼”(U 8.1073-74)를 사용했다고 하면서 개종 관행을 비판한다.

그러면 세기 전환기의 개종 활동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을까? 『더블린 사람들』의 「진흙」(“Clay”)은 좀 더 세련된 형태의 신교도의 개종 활동을 보여준다. 마리아(Maria)가 머물고 있는 <더블린 등대 세탁소>(Dublin by Lamplight)는 자선활동 기관으로 과거에 화류계에서 일했던 여성 또는 마리아처럼 오갈 데 없는 여성에게 일자리와 거주지를 제공해 준다. 이러한 신교도의 자선활동은 대기근 시대의 수프 제공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지만, 개종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들이 볼 수 있게 전시된 “종교적 책자”(D 96)는 개종이 중요한 목표임을 보여준다. 마리아가 이 책자에 대해 불편해하는 것으로 보아 개종의 의도는 작품에 표현된 것보다 더 노골적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마리아의 “종교적 책자”에 대한 생각과 달리 마리아의 신교도에 대한 생각은 이미 바뀐 상태이다. 그녀는 과거에 “신교도를 나쁘게 생각했으나 그들은 조금 조용하고 심각하기는 하지만 같이 살기에 여전히 좋은 사람”(D 96)이라고 생각한다. 이 작품의 시작이 신교도인 감독관이 마리아가 “외출을 해도 좋다는 허가”(D 95)로 시작된다는 점은 그녀가 신교도에 대해 가진 인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녀는 부원장이 “상대하기에 좋은, 고상한 사람”(D 96)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고상한”(genteel)이라는 표현은 신교도를 묘사하는 데 자주 사용되는 ‘젠틀맨’(gentleman)의 의미를 가진다. 아일랜드에서 “젠틀맨”은 토지를 소유한 신교도를 일컫는 말로 오랫동안 사용되었다. 20세기에 들어

와서 ‘젠틀맨’의 의미가 다소 변했지만, “계급과의 연관성은 없어지지 않았다”(Terci 50). 마리아의 신교도에 관한 생각의 변화는 일자리와 거주지 제공으로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앞으로 마리아의 개종 여부는 “가족, 교회, 지역의 종교 공동체”와 같이 “종교적 차이와 이와 연관된 문화적 차이를 재생산”하는 데 필수적인 단체의 도움에 달렸다(Ruane 116). 이 작품에서 그녀를 “진정한 엄마”(D 96)로 생각하는 조우(Joe)의 가족과의 유대는 그녀가 경제적으로는 신교도에 의존하지만 개종하지 않는, 아니 개종할 수 없는 이유이다. 비평가들은 흔히 마리아를 “알레고리적 인물”로 확대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녀의 이름 때문에 그녀를 성모 마리아(Virgin Mary)나 메어리 막달린(Mary Magdalene)과 연결시킨다(Norris 141, Eide 58). 마리안 아이드는 마리아를 성경에 나오는 메어리 막달린을 연상시키는 인물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막달린이 “창녀” 또는 “예수의 추종자”로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이다(58). 마리아가 창녀였던 여성들과 일하고 있다는 점은 그녀를 막달린과 연관지어 보게 한다. 이 작품에서 성모 마리아 또는 “예수의 추종자”를 연상시키는 인물인 마리아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신교도의 개종 작업이 얼마나 교묘했는지 보여준다.

『율리시스』는 작품의 배경인 1904년 6월 16일 더블린에서 진행 중인 신교도의 개종 활동을 보여준다. 블룸은 YMCA 청년으로부터 전도 전단지 받는데, 여기에는 존 알렉산더 도위(John Alexander Dowie) 박사가 전도하기 위해 아일랜드에 온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블룸은 전도를 “수지맞는 장사”(U 8.17)라고 평가절하한다. 실제로 도위는 “일부다처제”(U 8.17)와 같은 허무맹랑한 주장뿐만 아니라 “자금의 유용”으로 고발당한다(Gifford 157). 그의 선교행위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임을 「태양신의 황소」(“Oxen of the Sun”) 장에 등장하는 도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는 “하느님은 싸구려 카니발 쇼가 아니야. . . 그는 매우 멋진 사업 소재지”(U 14.1585-87)라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종교를 이용하려 한다. 조이스는 순수한 신앙적인 목적이 아닌 이해관계에 따른 어떠한 개종행위도 비판한

다. 조이스는 아일랜드에서 신교도의 개종행위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비판한다.

조이스는 개종을 신교도가 가톨릭을 개종하려는 작업에 국한된 행동으로 보지 않는다. 조이스는 신교도와 구교도의 힘의 역학관계가 바뀔 수 있음을 보여준다. 블룸은 영국 총리를 역임하면서 아일랜드 자치법안을 상정했던 “글래드스톤(Gladstone)이 [1898년에] 거의 의식이 없을 때 그의 개종을 위해 기도”(U 5.323-24)를 했음을 상기하는데 가톨릭의 이러한 행동은 “윌리엄 왈쉬(William J. Walsh) 박사를 진정한 종교로 개종하라”(U 5.325-26)는 신교도의 태도와 다름이 없다고 생각한다. 어느 쪽이든지 간에 자신의 종교가 진정한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개종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음을 비판한다. 또한 가톨릭이 전 영국 총리의 개종을 원하는 것은 세기 전환기에 가톨릭의 세력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서 20세기 전환기의 아일랜드는 신교와 신교도가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는 시대가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III

아일랜드 대기근 시 영국 정부의 효율적인 대처 실패는 19세기 후반에 아일랜드 정치적 상황의 급변을 초래한다. 대기근으로 미국으로 건너간 아일랜드 이민자를 중심으로 피니언 형제단(Fenian Brotherhood)이 결성되고, 이것의 영향을 받아 아일랜드에서는 아일랜드 공화정 형제단(Irish Republic Brotherhood)이 만들어져 아일랜드가 영국에서 독립해서 공화국이 되어야 한다는 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또한 사회변화에 따라 선거법이 개정되어 1880년 이후에는 민족주의 계열의 정당이 국회의원의 70~80%를 형성하게 된다. 영국의 자유당(Liberal Party)은 집권하기 위해 아일랜드 국회의원에 의지하게 되고, 그 결과 아일랜드 자치법안을 상정하게 된다. 1859년 선거만 해도 아일랜드에서는 보수당 후보가 105석 중

에서 55석을 차지하여 다수를 형성하였지만, 1880년대부터 독립 이전까지 보수당은 얼스터 지역을 중심으로 20% 내외의 의석만을 차지하게 된다. 조이스는 『율리시스』의 「에우마이오스」(“Eumaeus”) 장에서 아일랜드 민족주의자들이 득세하게 되는 정치적 상황을 언급한다. 서술자는 파넬을 몰락시킨 것은 “약 80명의 의원 중에서 72명”(U 16.1729-30)이고, 이들은 “주로 칭송을 받는 농민 계층이고, [파넬이] 그들의 농지를 되찾아 준 추방당한 바로 그 소작인”(U 16.1729-30)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과거에 소작인이었던 가톨릭이 영국 국회에 진출하게 된다. 이렇게 격변하는 시대에 신교도들의 정치, 사회적 입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된다.

『더블린사람들』의 「선거사무실에서 맞는 파넬기념일」(“Ivy Day in the Committee Room”)에 등장하는 크로프트(Crofton)은 신교도인데, 보수당 후보가 사퇴하자 민족주의 후보의 선거운동원이 된다. 이를 통해 보수당은 의원선거 후보를 낼 수 없을 정도로 아일랜드에서 기반을 잃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크로프트는 민족주의 후보의 선거운동원이 되지만, “사람들을 보고 서 있기만 해서 . . . 선거운동원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한다”(D 127). 이는 그가 민족주의당과 노동당을 “두 개의 악”(two evils)(D 128)으로 보고 이 중에서 “덜한 쪽”(D 128)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당시 신생 전당인 노동자를 대변하는 노동당은 지주 계층과 소작인의 계급 갈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기에 토지를 소유한 신교도에게 위협적인 존재였다. 반면에 민족주의 후보는 보수당원처럼 부자이며 “세금을 낮추려 한다”(D 128)는 점에서 유사하기에 크로프트는 민족주의 후보를 지지한다. 크로프트의 뚱뚱한 외모와 더불어 그의 파넬에 대한 평가는 신교도의 정체성을 보여준다. 파넬이 아일랜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희생한 점은 무시하고 “젠트맨이기 때문에 존경한다”(D 130)는 사실은 자신이 파넬처럼 앵글로 아이리시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하인즈(Hynes)의 파넬을 칭송하는 시에 대해서도 “아주 멋진 글이네”(D 133)라는 문학적 평가만 내린다. 이는 “시에 함축되어있는 불편한 정치적 비평을 차단, 회피”하기 위해서 “미학적인 면모에 대한 비평에 집중”하려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Cheng 126).

『율리시스』의 「키클롭스」(“Cyclops”) 장에서 크로프튼은 더블린 캐슬에서 일하는 가톨릭교도인 마틴(Martin)과 파우어(Power)씨와 함께 관용차를 타고 등장하는데, 그가 파우어씨와 가까워진 이유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하데스」(“Hades”) 장에서 비밀스러운 연애를 하는 파우어씨가 애인에게 “립프 스테이크 1 파운드를 가져가는 것”(U 6.247-48)을 목격한 사람이 크로프튼이라는 사실은 두 사람이 가까워진 동기가 될 수도 있다. 더블린 캐슬의 왕립 경찰본부에서 일하는 파우어씨의 이름은 의미심장하다. 그의 이름은 권력의 상징이며, 크로프튼이 그를 만나는 것은 새 주류 세력에 속하고 싶어하는 욕망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크로프튼이 서술자에 의해 철저히 무시당한다는 사실이다. 서술자는 그의 이름이 크로프터(Crofter)인지 크로포드(Crawford)인지 헛갈려 하면서 그의 정체성에 의문을 표한다. 서술자는 크로프튼이 떠날 때는 “그의 이름이 무엇이든지 간에”(U 12.1769)라고 말하면서 정확한 이름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데 이는 그와의 거리감의 표현이다. 반면에 크로프튼은 자신이 소외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유대인인 블룸을 고립시키는 데 동참한다. 그는 “우리는 [블룸]을 원치 않아요”(U 12.1634)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우리’라는 대명사를 통해서 자신은 구성원에 속하고, 블룸은 타자로 규정한다. 조이스는 크로프튼을 통해서 가톨릭교도 사이에 있는 외로운 신교도를 묘사한다. 이를 통해 사회의 주류가 신교도에서 가톨릭교도로 변하고 있는 시대에 사회의 주류에 편승하고 싶어 하는 신교도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크로프튼은 「죽은 사람들」(“The Dead”)에 등장하는 유일한 신교도인 브라운(Browne)씨와 여러 면에서 유사하다. 브라운씨는 크로프튼처럼 “적극적으로 가톨릭교도와 어울리려 한다”(최석무 44). 그는 술꾼으로 모든 사람들의 염려의 대상인 프레디(Freddy)를 소외시키면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려 하는데 이는 크로프튼이 블룸을 고립시키려는 것과 유사하다. 그리고 그는 트리니티 대학(Trinity College)을 그의 “삶의 이정표”인 것처럼

럼 생각하고 있고, “억압받는 자들의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신교도로로서의 그의 정체성을 은연중에 드러낸다”(최석무 45). 그의 신교도로로서의 정체성은 크로프튼의 경우처럼 그의 행동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게 하는 근거가 된다. 가톨릭교도와 유대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는 크로프튼이 서술자에 의해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는 것도 브라운씨의 현실과 유사하다. 브라운씨는 가톨릭교도의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하지만 서너 번 무시 당한다”(Choi 495). 사회변화에 따라 행동 방식을 바꾸는 신교도에 대해 가톨릭교도는 호의적인 태도만을 가질 수는 없다. 과거 억압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기에 그들은 신교도를 아일랜드 공동체의 일원으로 흔쾌히 받아들일 수 없다. 조이스는 크로프튼과 브라운의 유사한 경험을 통하여 20세기 전환기의 신교도는 공통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신교도는 지금은 신교도가 아니더라도 과거에 신교와 연관성이 있었던 사람과 만날 때는 동류의식을 느낀다. 『더블린사람들』의 「은총」(“Grace”)에서 크로프튼이 가톨릭으로 개종한 커넌을 만날 때의 반응은 의미심장하다. 그는 “우린 다른 제단에서 섬기고 있지만 우리들의 믿음은 똑같은 거야”(D 165)라고 말하면서, 커넌이 개종은 했지만 계속 그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의향을 표명한다. 커넌처럼 신교도가 가톨릭으로 개종하는 예를 통해서 아일랜드에서 신교도는 기존의 구성원마저 잃어버릴 수 있는 처지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율리시스』에서 커넌은 공동묘지에서 블룸과 만나 동류의식을 느끼는데, 이는 그들이 결혼하기 전에 신교도였기 때문이다. 블룸이 생각하듯이, 그들은 “같은 배에 탄 셈이다”(U 6.663). 블룸의 아버지는 유대교였다가 신교로 개종을 했고, 자신은 신교도로 태어났으나 고등학교 시절에 “아일랜드 신교교회의 교리에 대한 불신”(U 17.1636)을 드러내다가 결국 “결혼할 시기에 결혼할 목적”(U 17.1640)으로 가톨릭으로 개종을 한다. 커넌이 블룸에게 신교도 장례식이 “더 단순하고 인상 깊다”(U 6.665-66)고 가톨릭 장례식을 비판하자, 블룸도 이에 동의한다. 그들의 이러한 태도는 신교도였다가 가톨릭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 개종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IV

블룸과 커넌이 가톨릭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서 가톨릭으로 개종한 것을 교황의 칙령 “네 테메레”(Ne temere)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 칙령은 “가톨릭과 신교도의 결혼에 대해 가톨릭교회의 통제권”을 강화해서 “가톨릭과 신교도의 관계에 썩기를 막는 데 크게 기여했다”(Lee 11). 1908년에 공포되어 전 세계 가톨릭교도에게 적용된 이 칙령은 아일랜드에서 유래하였다. 19세기 후반에 전 세계적으로 아일랜드 가톨릭교회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어 아일랜드 교회 관습 일부가 보편적인 가톨릭 규범이 된다. 19세기 후반에 아일랜드 주교들은 “누구와 어디서 어떠한 상황에서 결혼해야 하는지” 결정했고, 신도들은 이를 기꺼이 받아들였다(Barr 19). 영어 사용 국가의 가톨릭교회에 유럽 본토 출신의 주교가 아니라 “아일랜드 출신 주교들이 임명”되어 아일랜드 교회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자, 아일랜드 교회의 규율인 이교도와의 결혼 금지는 교황의 칙령으로 제정, 공포되어 전 세계로 확대된다(Barr 19). 이 칙령에 따라 가톨릭 성직자가 주재하는 가톨릭교도와의 결혼만 합법적인 결혼으로 간주되어, 이교도와의 결혼 시에는 특별한 규칙을 따라야 했다. 『율리시스』의 「나우시카」(“Nausicaa”)장에서 신교도와 결혼하고자 하는 거티(Gerty)는 이 칙령을 내재화하고 있다. 그녀는 레기 와일리(Reggy Wylie)가 “신교도건, 감리교도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개종시킬 수 있을 것이다”(13.433-34)라고 말하는데, 그의 개종은 가톨릭인 거티와의 결혼의 필수 전제 조건이다.

블룸은 결혼하면서 가톨릭으로 개종했고, 현재 신교에 대한 미련이 없다. 그는 장례 의식은 신교 의식을 선호하지만, 음악의 경우에는 “가톨릭 교회의 성스러운 음악을 훨씬 더 좋아한다”(U 16.1740-41). 그는 주위 사람들에게 신교도가 아니라 유대인으로 간주되고 차별을 받는다. 반면에 커넌은 가톨릭으로 개종했지만, 신교에 여전히 미련이 있다. 「은총」에서 알 수 있듯이, 커넌은 가톨릭 여성과 “결혼할 때 가톨릭으로 개종했지만, 20년 동안 교회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D 156)는 것은 그의 개종은 결혼 때

문에 불가피한 것이었고, 그의 신앙관과는 무관함을 보여준다. 더욱이 그는 “가톨릭 신앙을 공격하는 것을 좋아했다”(D 156). 그는 촛불을 “요술 등불”(D 171)이라고 말하면서 가톨릭 의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가톨릭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이다. 커넨의 집을 방문한 파우어씨는 아이들에게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와 “무슨 책을 공부하는지”(D 153) 묻는데, 이러한 질문은 신교도에서 가톨릭으로 완전히 전향했는지 판단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교황의 칙령 “네 테메레”에 따르면, 한 쪽이 가톨릭이 아닌 결혼의 경우에 “아이를 가톨릭으로 양육해야 한다”(Megahey 166). 이는 아이를 가톨릭 학교에 보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톨릭 학교는 도널드 애킨슨(Donald Akenson)이 주장하듯이 “가톨릭 사회와 외부사회 사이의 경계”를 정의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190). 커넨의 아이들이 가톨릭 학교에 다니면 가톨릭적 정체성을 배우고 가톨릭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는 신교 학교인 디시(Deasy)의 학교에서 학생들이 신교도 교육을 받고 신교도의 정체성을 배우는 것과 같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의 전쟁이 교실 안에서 행해진다”고 할 수 있다(Barr 473).

커넨의 두 아들은 현재 글래스고(Glasgow)와 벨파스트(Belfast)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더블린 및 남쪽 아일랜드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일자리도 충분하지 않지만, 가톨릭으로 개종은 했지만 가톨릭을 비난하는 그들의 아버지의 행태는 그들이 남쪽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이 단편소설에서 커넨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그는 여전히 가톨릭 교리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만, 가톨릭교도들의 논리에 수긍한다. 예를 들면, 커닝햄(Cunningham)이 가톨릭이 “오래되고 원래 그대로의 신앙이지”(D 165)라고 말하자, 커넨은 “의심할 바 없지”(D 165)라고 말한다. 커넨은 과거 교황의 도덕적 문제점에 대해서 말을 꺼내지만, 커닝햄이 나쁜 교황은 있었지만, 교황이 교황의 “권위로 설교할 때는 틀린 교리를 말한 적이 없지.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닌가?”(D 168)라고 말하자, 커넨은 이에 동의한다. 이러한 자세는 커넨이 가톨릭을 받아들이겠다는 각오이고, 이는 그의 피정 참여로 이어진다.

커넌의 피정 참석을 커넌의 가톨릭 교리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20세기 초반의 아일랜드 정치적 맥락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파리아니(Parwez Paryani)가 주장하듯이, 커넌은 “가톨릭교도가 아닌 사람들이 겪게 되는 사회적 압력” 때문에 피정에 참석하게 된다(3). 그는 다른 장면에서도 아일랜드 사회의 새로운 주류인 가톨릭 공동체에 소속되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는 크로프튼의 경우처럼 가톨릭 사회에서 힘이 있는 파우어씨와 친하고, 그에게 의지해서 살아간다. 파우어씨는 그의 이름처럼 ‘힘’이 있는 사람이다. 그는 커넌 부부의 “부부싸움을 중재하고 크지는 않지만 긴요한 돈을 빌려줄”(D 154) 능력이 있다. 커넌 부인이 “남편과 춤을 추면서 애정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파우어씨의 반주”(D 155)가 큰 역할을 했다. 커넌은 파우어씨 및 더블린 캐슬에서 일하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성당에 가고, 거기서 힘 있는 사람들이 성당에 왔음을 확인하고서야 마음이 놓이고, 설교하는 신부는 “힘 있어 보이는 (powerful-looking) 인물”(D 173)이기에 주의를 기울인다. 조이스는 “power”를 여러 번 사용하면서 커넌이 권력을 좇는 인물임을 보여준다.

커넌은 『율리시스』 「하데스」장에서 「은총」에 등장한 인물들과 함께 디그넘(Dignam)의 장례식에 다시 등장한다. 그 장례식에 참석한 인사들의 명단이 그날 신문에 기재되어 있는데 “토마스 커넌”(U 16.1259)도 있다. 아일랜드에서 장례식은 동류집단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기회가 된다. 아일랜드에서는 종교적 규율에 따라 다른 종교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신교도로 아일랜드 대통령을 역임한 더글라스 하이드의 경우에도 그가 사망하자 “가톨릭교회의 규율에 따라서 한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내각 구성원이 그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다”(d’Alton 70). 디그넘의 장례식에 커넌과 블룸이 참석한 것은 그들이 가톨릭으로 개종을 했기 때문이다. 블룸이 생각하듯이 신교도들은 “마운트 제롬(Mount Jerome)”(U 6.513-14)에 묻히고, 디그넘과 같은 가톨릭은 글래스네빈(Glasnevin)에 매장된다. 아일랜드 사회는 학교나 교회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철저히 분리된 사회이다.

『율리시스』 「사이렌」(“Sirens”)장에서 커넌은 오먼드(Ormond) 호텔에

서 가톨릭 민족주의자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들으면서 일체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카울리(Cowley) 신부가 벤 돌라드(Ben Dollard)에게 모차르트의 오페라 곡을 불러달라고 요청하지만, 커넨은 그에게 아일랜드 독립운동에 관한 노래인 <까까머리 소년>(The Croppy Boy)을 불러 달라고 청한다. 그것도 “우리의 고유의 사투리”(U 11.991)로 불러달라고 한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커넨은 가톨릭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다른 가톨릭교도들과 유대감을 느끼려 한다. 벤은 커넨을 포함한 네 사람을 존 켈스 잉그램(John Kells Ingram)의 1798년 봉기에 관한 시인 「망자의 기억」(“The Memory of the Dead”)에서 순교한 애국자를 이해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여러분과 같은 진실한 사람들”(U 11.1276)이라고 부르면서 건배를 제의하는데, 여기서 커넨이 일원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같은 장소에 있던 블룸은 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외로움을 느끼면서”(U 11.1136) 주점을 나와 가스를 내뿜으면서 사라진다.

현실과 초현실이 교차하는 「키르케」(“Circe”) 장에서 커넨은 「하데스」장과 「사이렌」장에 등장했던 인물들과 함께 블룸의 죄를 판결하는 배심원이 된다. 그는 다른 배심원들과 함께 “배심원들”(U 15.1146, 1150)이라는 이름 하에 한목소리를 낸다. 이는 커넨이 아일랜드 가톨릭교도의 일원이 되고 싶은 소망을 보여준다. 블룸이 통치자로 추대되는 장면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블룸이 자신이 아일랜드인임을 보여주기 위해 신고 있는 “초록색 양말”(U 15.1521)을 보여주자, 커넨은 “각하,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U 15.1523)라고 블룸에게 경의를 표한다. 커넨은 블룸이 최고 통치자가 된 것에 기뻐하는데 이는 아일랜드 사회에서 똑같은 처지에 있는 커넨에게 큰 위로가 된다. 그는 자기 자신도 블룸처럼 아일랜드 사회에서 대우받으면서 살고 싶다는 소망을 보인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커넨은 아일랜드 가톨릭 주류사회에 속하고 싶어 한다. 커넨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지역의 종교 공동체”로서 “가족, 교회”와 더불어 “종교적 차이” 및 “문화적 차이”를 재생산하는 데 필수적인 단체이다(Ruane 116). 특히, “지역의 종교 공동체”는 “사이클이 저절로

반복되게 결혼 상대”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여 종교적 전통이 유지 및 지속되게 한다. 파우어씨 등 지역의 종교 공동체는 커넨 부인처럼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교도와 결혼한 부부가 지역 공동체에 동지들을 틀 수 있게 도움을 준다. 「은총」에서 가톨릭 공동체 구성원들은 커넨을 피정으로 이끌어 가톨릭 공동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커넨은 가톨릭으로 개종하였고 가톨릭 공동체에 소속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의 내면의 생각은 어떠한가? 그는 가톨릭교도와 함께 있을 때는 온전히 그들과 일체가 되고 싶어 하지만, 혼자 생각에 잠길 때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 『율리시스』의 「떠도는 바위들」 장에서 커넨은 자신이 구매한 멋진 중고 코트가 더블린에서 가장 멋진 앵글로 아이리시 클럽인 “킬테어가 클럽의 멋쟁이”(U 10.745)가 입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자신의 혈색이 “인도에서 복무하다 돌아온 장교”(U 10.756) 같다고 생각한다. 아일랜드 출신 장교들의 대부분이 “앵글로 아이리시 신교도 지주 계층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Jeffery 105), 커넨은 여전히 신교도 지배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과거 신교도의 아일랜드 독립운동에 대한 커넨의 생각에서도 엿볼 수 있다. 커넨은 아일랜드 독립을 위해 봉기했던 18세기 말과 19세기 초의 에멧과 에드워드 피츠제럴드(Edward Fitzgerald)를 생각하는데 이들은 “잘못된 길을 걷었지”(U 10.789-90)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반란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현재 가톨릭교도가 주도하는 아일랜드 독립이 임박한 시기에 신교도들이 아일랜드에서 소수집단으로 전락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의 표현이다. 커넨은 19세기 전환기의 다른 신교도 애국자인 조나 배링턴 경(sir Jonah Barrington)과 존 켈스 잉그램을 생각하는데 이들에 관한 생각도 별반 다르지 않다. 커넨은 “조나 배링턴 경의 회고록”을 네드 램버트에게 빌리고자 하는데 그의 치적이라 할 수 있는 합방반대에 대한 언급은 없다. 커넨은 잉그램의 1798년 봉기에 관한 시 「망자의 기억」의 시구절인 “그들은 어둡고 사악한 시대에 봉기했다”(U 10.790)를 떠올리지만, “좋은 시”(U 10.791)라고 시의 작품성만 평가한다. 이는 앞서 논의한 크로프

튼의 파넬에 관한 시의 평가인 “아주 멋진 작품”(D 133)과 비슷하다. 1798년 대반란에 관한 민요 <까까머리 소년>을 생각할 때에도 이 노래의 내용은 평가하지 않고, “벤 둘라도가 참 감격적으로 부르지”(U 10.791)라고 노래 솜씨만 떠올린다. 「떠도는 바위들」장에서 커넨의 이야기는 아일랜드 독립운동가를 생각하다가 총독의 행렬을 “간발의 차이로 놓친 것”(U 10.797)에 대해 무척 아쉬워하는 장면으로 끝이 나는데, 이 부분이 그의 정체성을 결론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표면적으로 가톨릭교도와 가까이 지내고 있지만, 영국의 아일랜드 지배를 지지하는 친영파적인 성향을 가진 인물이다.

커넨이 신교도 출신 아일랜드 애국자들을 생각하는 장면에서 특이한 것은 그들의 출신배경을 언급한다는 점이다. 피츠제럴드의 경우에는 “훌륭하고 용감한 젊은 귀족. 좋은 명문가 출신”(U 10.788)이라고 말하고, “어둡고 사악한 시대에 봉기한”(U 10.790) 신교도들을 “젠틀맨”(gentlemen)(U 10.791)이라고 칭한다. 앞서 논한 크로프튼처럼 커넨은 이 단어를 통해 신교도 애국자들과 자신과의 연대 의식을 드러낸다. 이는 신교도 특유의 사고방식으로 아일랜드 역사상 중요한 일은 신교도가 주도했다는 자긍심의 표현이기도 하다. 흥미로운 것은 커넨이 신교도 애국자들을 꼭 생각하다가 “젠틀맨”이라고 규정한 후에, 민요(ballad) <까까머리 소년>을 생각한다는 점이다. 민요는 “피지배민의 문화적 형태”로서 “개인적 사건이나 기억에 정치적 파괴력을 간직한 채 . . . 은밀하게 존재한다”(Gibbons 145). <까까머리 소년>은 한 가톨릭 소년의 삶을 통해 영국 지배자의 만행을 고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지배자의 이야기이다. 커넨은 신교도 애국자를 “젠틀맨”(U 10.791)이라 칭하고, 가톨릭 애국자는 따로 언급한다는 점에서 아일랜드인을 신교도/가톨릭으로 구분하는 계급의식을 갖고 있다. 그의 의식을 통해 가톨릭으로 개종한 신교도의 한계를 엿볼 수 있다.

V

커넌과 더불어 아일랜드 가톨릭 공동체 구성원들이 관심을 가진 인물이 『율리시스』에 등장하는 마이너 퓨어포이(Mina Purefoy) 부인이다. 오톨(Fintan O'Toole)이 주장하듯이, 그녀는 블룸이 브린(Breen) 여사와 대화를 나누면서 뷰어포이(Beaufoy)를 퓨어포이로 잘못 들으면서 등장한 “주변적인” 인물이지만, 작품이 진행되면서 “중심부”로 이동하는 인물이다(93). 더블린 사람들은 그녀의 분만에 관심이 많고, 블룸과 스티븐 등은 그녀가 분만을 하고 있는 홀레스(Holles)가의 산과 병원을 방문한다.

퓨어포이 부부의 경우는 특이하다. 커넌과 달리 퓨어포이 부인의 남편은 결혼 시에 가톨릭으로 개종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남편은 “감리교도”(U 8.358, 14.518)라고 두 번 언급되는데, 이는 남편은 감리교도이고 그녀는 가톨릭교도로서 종교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녀는 “매년 건실한 아기”(U 8.362)를 한 명씩 낳는데 이는 “거의 매년 출산”(U 8.31)하는 스티븐의 어머니와 같이 가톨릭 여성의 숙명을 따르고 있음을 암시한다. 블룸은 “생육하고 번성하라”(U 8.33)는 가톨릭 교리를 따르지 않으면 “신부는 고해도 사면도 하지 않는다”(U 8.32-33)고 가톨릭 교리를 비판한다. 블래마이어스(Harry Blamires)가 주장하듯이 그녀는 “아일랜드의 가련하지만 다산인 육체”의 상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194). 또한 “키르케” 장의 흑미사(Black Mass) 장면(U 15.4691-4706)에서 가톨릭 신부가 주임신부로 등장하고 복사는 신교 성직자인데 이는 그녀가 가톨릭교도이고 남편이 신교도인 그녀의 현재 상황을 반영한다.

퓨어포이씨는 커넌과 달리 가톨릭으로 개종을 하지 않는데, 이는 커넌과 달리 신교 지배층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얼스터 बैं크의 이등 회계사”(U 14.1324)로 은행원(banker)인데, 은행원은 의사와 변호사보다 신교도가 독점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직종이었다. 1911년 통계에 따르면 얼스터 지역을 제외하고 “신교도는 인구의 10%”를 차지했는데, “변호사는 50%, 의사는 3분의 1, 은행원은 4분의 3”을 차지했다(d'Alton

65). 신교도의 은행 지배권은 아일랜드 독립 직전에 신교도가 아일랜드 경제를 지배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퓨어포이씨는 다른 면에서도 신교도의 정체성을 보여준다. 자신의 아이 “뵉시”(Bobsy)의 이름을 영국 장군인 “남아프리카 전쟁 영웅인 보브스 경(lord Bobs)”(*U* 14.1331)의 이름에서 따오고, 막 태어난 아들의 세례명을 더블린 캐슬에서 근무하는 “영향력 있는 8촌 형의 이름”(U 14.1334-35)을 본떠 지으려고 한다. 그의 이러한 행위는 영국 지배자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가톨릭으로 개종할 의향이 없음을 암시한다. 교황의 칙령에 따르면 가톨릭이 신교도와 결혼할 때, 아이는 가톨릭으로 양육해야 하는데, 퓨어포이씨는 아이들에게 영국적인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아 그들을 가톨릭으로 양육할 것 같지 않다. 아일랜드 가톨릭 공동체는 이렇게 곤란한 처지에 있는 퓨어포이 부인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도움을 주려 한다. “poor”(U 8.358, 8.365, 11.903, 11.1102, 14.511)란 단어가 그녀를 묘사하는 데 자주 사용되는데, 이는 3일 동안 산고를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톨릭적인 가정을 만들 수 없는 그녀의 딱한 처지에 대한 가톨릭 공동체의 연민의 정의 표현이다.

VI

조이스는 20세기 전환기의 아일랜드의 급격한 사회변화와 이러한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신교도의 모습을 잘 재현하고 있다. 가톨릭을 신교도로 개종하는 것이 힘든 시기에 신교도는 아일랜드에서 소수집단이 되는 두려움을 가진다. 교회와 토지 관련 법안의 잇따른 통과에 따른 특권 폐지와 자치법안의 상정으로 아일랜드 독립이 가시화되자, 신교도는 가톨릭 주류사회에 참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퓨어포이씨처럼 좋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고, 권력을 가진 지인이 있는 경우는 사회변화에 개의치 않고 살 수 있지만, 신교도의 전통적 특권을 상실한 평범한 신교도에 해당하는 크로프튼이나 커넌은 새로운 주류와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살길

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 크로프튼의 경우는 민족주의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거나 더블린 캐슬에서 일하는 가톨릭과 친하게 지낸다. 커넨은 결혼과 더불어 가톨릭으로 개종한 경우로 그는 권력을 가진 가톨릭교도와 어울린다.

조이스는 신교도가 가톨릭과 교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들의 한계도 지적하고 있다. 크로프튼과 커넨은 과거 신교도 애국자를 칭송하고 그들이 신교도라는 것에 긍지를 느끼지만, 아일랜드 독립에 기여한 점은 언급하지 않는다. 독립이 그들을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더욱 고립시킬 것이기에 독립을 지지할 수 없는 처지이다. 이러한 면에서 그들의 정체성은 테리 이글턴과 데클런 카이버드가 분석한 문예 부흥론자의 친영과/제국주의자적 정체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들이 가톨릭교도와 교류하는 모습은 변화하고 있는 사회에 대한 그들의 생존방식이다.

조이스가 보여주고 있는 신교도와 가톨릭의 우호적인 관계는 1916년 부활절 봉기 이후 아일랜드 독립운동이 절정에 달하면서 갈등 관계로 바뀐다. 『피네간의 경야』 이전의 조이스 작품이 “에드워드 시대”를 주로 다루고 있기에 조이스 독자들은 신교도와 가톨릭의 우호적인 관계에 익숙해 있다. 조이스가 『피네간의 경야』에서 에드워드 시대 이후에 발생한 신교도와 가톨릭교도 간의 갈등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피네간의 경야』가 보여주고 있는 텍스트의 난이성, 복잡성, 다성성 때문에 이러한 연구가 쉽지 않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윌리엄 트레버(William Trevor)와 같은 조이스 이후의 아일랜드 작가들이 신교도의 현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조이스와 비교하는 연구도 의미 있는 연구일 것이다.

(고려대)

인용문헌

- 최석무. 「권력관계로 읽는 「죽은 사람들」: 약자에게 힘을 부여하기」. 『제임스조이스저널』, 15권 2호, 2009, pp. 37-53.
- Akenson, Donald. *Half the World from Home: Perspectives on the Irish in New Zealand, 1860-1950*. Victoria UP, 1990.
- Barr, Colin. *Ireland's Empire: The Roman Catholic Church in the English-Speaking World, 1829-1914*. Cambridge UP, 2020.
- Blaimers, Harry. *The New Bloomsday Book: A Guide Through Ulysses*. Routledge, 1996.
- Burke, Mary. “‘Disremembrance’: Joyce and Irish Protestant Institutions.” *Éire-Ireland*, vol. 55, nos. 1 & 2, 2020, pp. 201-22.
- Cheng, Vincent. *Joyce, Race, and Empire*. Cambridge UP, 1995.
- Choi, Seokmoo. “James Joyce and Ethno-sexual Boundary Crossings.”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vol. 56, no. 3, 2010, pp. 487-500.
- d’Alton, Ian. “A Protestant Paper for a Protestant People: The *Irish Times* and the Southern Irish Minority.” *Irish Communication Review*, vol. 12, 2010, pp. 65-73.
- Eagleton, Terry. *Heathcliff and the Great Hunger: Studies in Irish Culture*. Virso, 1996.
- Eide, Marian. “James Joyce’s Magdalenes.” *College Literature*, vol. 38, no. 4, 2011, pp. 57-75.
- Ford, Alan. *Religion and National Identity*.
<https://irish-association.org/assets/uploads/publications/Religion-and-National-Identity.pdf>. Accessed 10 Oct. 2021.
- Gibbons, Luke. *Transformations in Irish Culture*. Cork UP, 1996.
- Gifford, Don & Robert J. Seidman. *Ulysses Annotated: Notes for James Joyce’s Ulysses*. U of California P, 1988.

- Jeffery, Keith. "The Irish Military Tradition and the British Empire." *'An Irish Empire'?: Aspects of Ireland and the British Empire*, edited by Keith Jeffery, Manchester UP, 1996, pp. 94-122.
- Kiberd, Declan. *Inventing Ireland*. Jonathan Cape, 1995.
- Joyce, James. *Dubliners*. Penguin Books, 2000.
- . *Ulysses*, edited by Hans Walter Gabler with Wolfhard Steppe and Claus Melchior, Penguin Books, 1986.
- Lee, Raymond M. "Intermarriage, Conflict and Social Control in Ireland: The Decree 'Ne temere'." *The Economic and Social Review*, vol. 17, no. 1, 1985, pp. 11-27.
- Megahey, Alan. "'God will defend the right': The Protestant Churches and opposition to home rule." *Defenders of the Union: A Survey of British and Irish Unionism since 1801*, edited by D. George Boyce and Alan O'Day, Routledge, 2001, pp. 159-75.
- Norris, Margot. *Suspicious Readings of Joyce's Dubliners*. U of Pennsylvania P, 2003.
- O'Toole, Fintan. "'I Suppose They're Just Getting up in China Now': Joyce, The City, and Globalization." *Dublin James Joyce Journal*, no. 1, 2008, pp. 84-97.
- Paryani, Parwez. *The Utilization of Catholicism for an Irish National Identity in James Joyce's "Grace": Unity Through Faith*. Grin Verlag, 2013.
- Pašeta, Senia. "Nationalist Responses to Two Royal Visits to Ireland, 1900 and 1903." *Irish Historical Studies*, vol. 31, no. 124, 1999, pp. 488-504.
- Pearse, Donald R. *The Senate Speeches of W.B. Yeats*. Faber and Faber, 1961.
- Platt, L. H. *Joyce and the Anglo-Irish: A Study of Joyce and the Literary Revival*. Rodopi, 1998.
- Ruane, Joseph. "Long Conflict and How it Ends: Protestants and Catholics in

Europe and Ireland.” *Irish Political Studies*, vol. 36, no. 1, 2021, pp. 109-31.

Tanner, Marcus. *Ireland's Holy Wars: The Struggle for a Nation's Soul 1500-2000*. Yale Nona Bene, 2003.

Terci, Mahmut. “The Gentleman and the British Cultural Space.” *International Journal of Cross-Cultural Studies and Environmental Communication*, vol. 2, no. 1, 2013, pp. 43-54.

Abstract

Adapting to Social Change:
Irish Protestants in the Writings of James Joyce

Seokmoo Choi

Joyce demonstrates how Irish Protestants coped with the rapid social change at the turn of the 20th century. As Irish independence became imminent with the passage of church and land-related laws and the introduction of Home Rule Bills, some Protestants, fearing isolation as an ethnic minority, made great efforts to participate in the Catholic mainstream society. Crofton and Kernan, ordinary Protestants who have lost the traditional privileges of Protestants, cannot help but look for a survival strategy. In the case of Crofton, he helps campaigns for a nationalist candidate or makes friends with Catholics who work at Dublin Castle. Kernan converted to Catholicism upon marriage, and associates with Catholics in power. Joyce shows Protestants interacting with Catholics, but points out their limitations as well. Crofton and Kernan acknowledge that many Irish patriots were Protestants, but they deliberately do not reveal that those Protestant patriots worked for Irish independence. Whether they converted to Catholicism or not, they share an imperialist identity with the Irish Revivalists. On the other hand, Protestants, like Mr. Purefoy, who have good jobs or are close to the powerful, live independently of social changes.

■ **Key words** : James Joyce, Protestants, Catholics, social change, history, Ireland

(제임스 조이스, 신교도, 가톨릭, 사회변화, 역사, 아일랜드)

논문접수: 2021년 11월 8일

논문심사: 2021년 11월 8일

게재확정: 2021년 12월 17일